

지속가능 성장을 위한

# VIP 리포트

- 글로벌 신흥 경제권의 성장 잠재력  
: 독립국가연합(CIS)의 자원 및 물류 경쟁력

발행인 : 하태형  
편집주간 : 한상완  
편집위원 : 주원, 백흥기  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  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  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  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  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(02-2072-624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 목 차

---

## ■ 글로벌 신흥 경제권의 성장 잠재력 : 독립국가연합(CIS)의 자원 및 물류 경쟁력

Executive Summary .....	i
1. 개 요 .....	1
2. 경제 및 산업 구조 .....	3
3. CIS 경제권의 성장 가능성 .....	5
4. 한국과 CIS 경제권의 경제 교류 .....	9
5. 시사점 .....	11
<b>【HRI 경제 통계】</b> .....	<b>12</b>

< 요약 >

■ 개요

(개요) CIS 경제권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. CIS 경제권은 1991년 舊소련이 붕괴한 이후 형성된 러시아, 카자흐스탄 등 11개 국가들의 지역 연합체를 의미한다. 형성 초기에는 자본주의체제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역내 국가들과의 단결보다는 선진국 등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집중하였다. 그러나 체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, 러시아를 중심으로 역내 경제 통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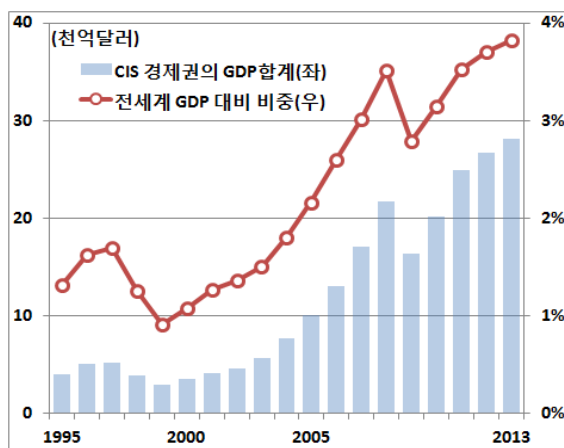
(경제적 위상) CIS 경제권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. 전세계 대비 GDP 비중은 2000년 1.1%에서 2013년 3.8%로 급증하였다. 동일기간 CIS 경제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.3%로 선진국의 1.8%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. 그러나 경기침체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이전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.

■ 경제 및 산업구조

(경제 구조) 소수 국가에 의한 경제 집중도가 높다. 2013년 기준으로 상위 1개국(러시아) 경제 집중도는 75.8%로 EU의 20.8%, ASEAN의 36.0%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. 한편 역내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. 총 교역액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0.1%에서 2012년 20.4%로 감소하였다. 이는 EU 경제권의 역내 교역 비중인 59.1%나 ASEAN 국가들의 24.7%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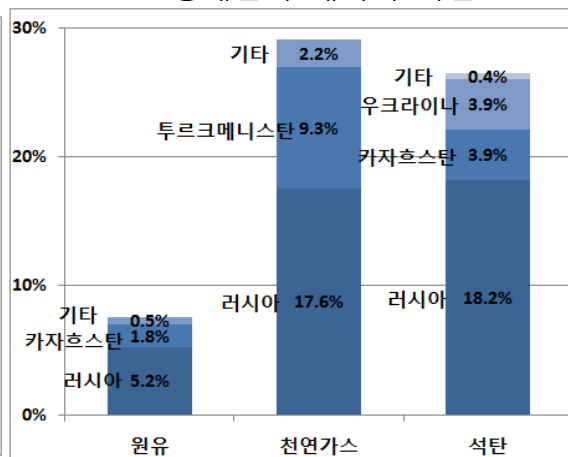
(산업 구조)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자원 의존 경제이다. 전체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1.7%에서 2011년 16.1%로 감소하였다. 동일기간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.7%에서 15.2%로 증가하여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었다. 자원 수출은 1995년 440억 달러에서 2012년 5,180억 달러로 연평균 15.6%씩 증가하였고, 2012년 기준 상품 수출의 64.5%가 에너지·광물자원과 관련되어 있다.

<CIS 경제권 GDP 규모와 비중>



자료: IMF.  
주: 명목 GDP 기준.

<CIS 경제권의 에너지 자원>



자료: BP(2013년 기준).  
주: 전세계 총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.

## ■ CIS 경제권의 성장 가능성

**첫째, 인구 2억 8천만 명의 거대한 소비시장이다.** CIS 경제권의 일인당 GDP는 2000년 1,300달러에서 2013년 10,000달러로 연평균 17.2%씩 증가하였다. 2013년 기준으로 러시아,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의 일인당 GDP는 거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보다 높다.

**둘째, 에너지·통신·수송 등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.** 현재 CIS 소속 국가들의 인프라 수준은 전세계 평균 이하이다.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대규모의 인프라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.

**셋째,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.** CIS 경제권은 전세계 원유의 7.5%, 천연가스의 29.1%, 석탄의 26.5%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자원 매장 지역이다. 에너지 자원 이외에도 철광석·금·크롬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
**넷째, 물류 산업 성장에 유리한 지리적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.** CIS 지역은 유럽과 동북아, 중동 등과 맞닿아 있어서 다양한 경제권을 연결한다. 도로와 해상 물류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,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육상 물류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.

## ■ 한국과 CIS 경제권의 경제 교류

**(무역)** 한국의 對 CIS 경제권 교역액은 1995년 이후 연평균 11.4%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. 한국은 주로 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, 원유 등 지하자원을 수입하고 있다. 그러나 한국의 총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.6%에 불과한 상황이다.

**(투자)** CIS 경제권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의 투자는 미약하다. 한국의 對 CIS 투자 규모는 2008년 1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3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다. 투자의 대부분은 제조업(38.2%)과 서비스업(39.2%)에 집중되어 있고,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8.0% 수준이다.

## ■ 시사점

**첫째, 장기적으로 EU를 능가할 잠재력을 보유한 CIS 경제권에 주목해야 한다.** 특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의 혼란기를 거쳐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카자흐스탄 등 다른 CIS 소속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. **둘째, 유라시아 대륙 물류시장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** 역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다. **셋째, 자원 개발, 인프라 건설 등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.** 자원개발 시장은 CIS 경제권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. **넷째, 정치·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.**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와 EU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 불안의 가능성 등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

## 1. 개요

### ○ CIS 경제권<sup>1)</sup> 개요

- CIS 경제권은 1991년 **舊소련의 붕괴 이후 형성된 러시아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 등 11개 국가들의 지역 연합체를 의미<sup>2)</sup>**
  - 고르바초프의 개혁·개방정책으로 舊소련 국민들의 민족주의·민주주의 의식이 고취되었고, 다민족으로 구성된 연방에 대한 해체 논의가 시작
  - 舊소련 소속 국가들 중에서 발트 3국<sup>3)</sup>과 그루지야<sup>4)</sup>를 제외한 11개 국가들이 CIS를 형성
- 체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, 러시아를 주축으로 CIS 소속 국가들은 **역내 경제 통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**
  - CIS를 형성한 초기에는 자본주의체제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역내 국가들과의 단결보다는 선진국 등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에 집중<sup>5)</sup>
  - 2010년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 등 3개국은 관세동맹<sup>6)</sup>을 결성하여 역내 경제 통합을 본격화
  - 향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연합(EU)과 유사한 형태의 유라시아연합(EAU)의 창설을 목표로 역내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



### <CIS 경제권 개요>

가입국	러시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 등 11개국
위치	유라시아 대륙
인구	2억8,000만명 (세계 인구의 3.7%)
면적	2,200만km <sup>2</sup> (세계 면적의 16.2%)
GDP	2.8조 달러 (세계 경제의 3.8%)
1인당GDP	약 10,000 달러(명목)
주요 자원	석유, 천연가스, 철광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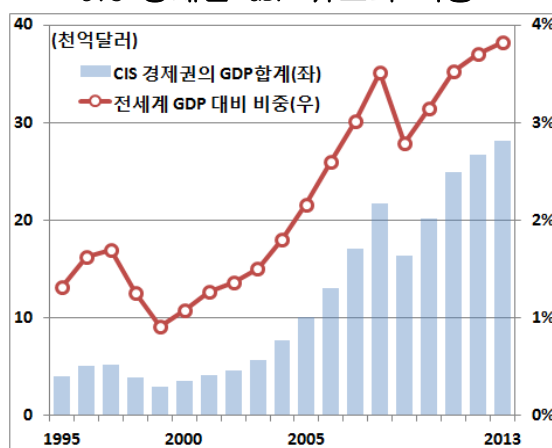
자료: CIA, IMF.

1) CIS는 독립국가연합(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)을 의미.  
 2) 최근 우크라이나가 CIS에서 탈퇴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, 본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음에 유의.  
 3) 발트 3국은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, 에스토니아를 의미.  
 4) 그루지야는 1994년 CIS에 가입하였다가,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에 탈퇴함.  
 5) 이재영 외, "CIS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: 관세동맹을 중심으로", KIEP(11-26), 2011.12.  
 6) 관세동맹(Customs Union)은 기맹국 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,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을 의미.

○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CIS 경제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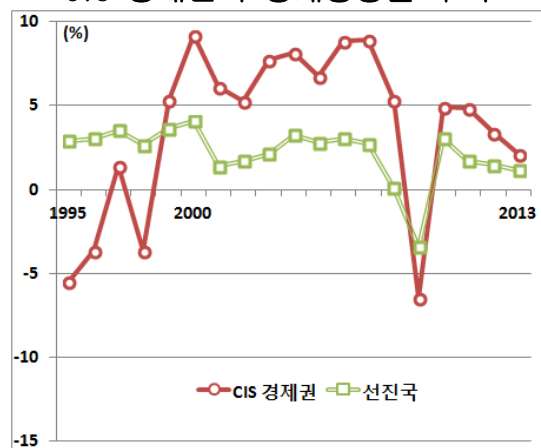
-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
  - 전세계 GDP 대비 CIS 경제권의 GDP 비중은 2000년 1.1%(3,520억 달러)에서 2013년 3.8%(2조 8,090억 달러)로 3.6배 정도 증가
  - CIS 경제권의 GDP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비슷하고, 한국의 2.3배 수준
  - IMF는 2018년 CIS 경제권의 GDP 규모가 약 4조 1,130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 세계 GDP의 4.2%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
  
- CIS 경제권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상대적으로 양호
  - 체제 전환이 어느 정도 달성된 2000년 이후 지속적(2009년 제외)으로 선진국 경제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
  - 2000년 이후 CIS 경제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.3%로 선진국 경제의 1.8%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<sup>7)</sup>
  - 글로벌 금융위기,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이전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음

<CIS 경제권 GDP 규모와 비중>



자료: IMF(명목 GDP 기준).

<CIS 경제권의 경제성장률 추이>



자료: IMF.

7) CIS 경제권 소속 개별 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(2000년~2013년)은 투르크메니스탄 13.1%, 아제르바이젠 11.3%, 타지키스탄 7.8%, 카자흐스탄 7.7%, 아르메니아 7.5%, 우즈베키스탄 7.1%, 벨라루스 6.4%, 몰도바 4.7%, 러시아 4.4%, 키르기스스탄 4.0%, 우크라이나 3.7% 순서.

## 2. 경제 및 산업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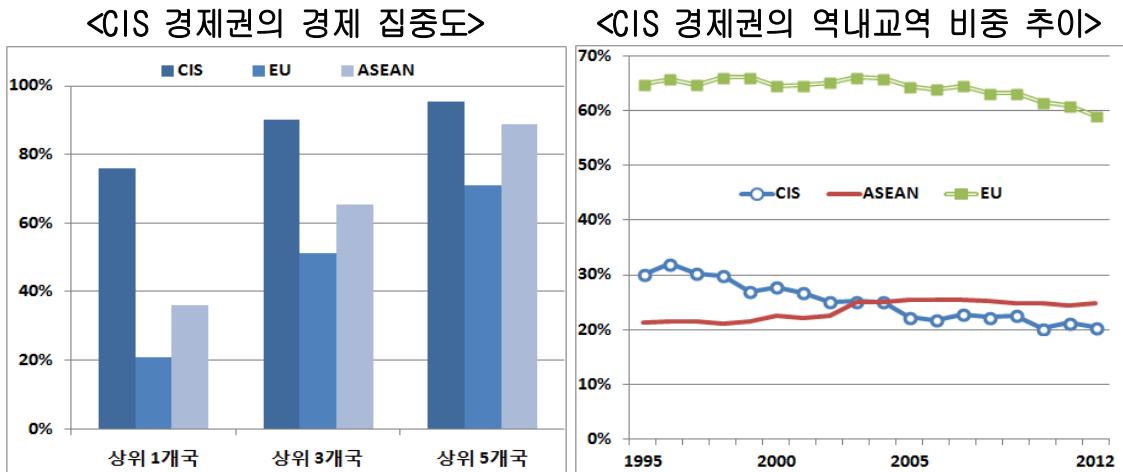
### ○ (경제) 소수 국가에 의한 경제 집중도가 높고 역내교역 비중이 낮음

#### - 러시아 등 상위의 주요 국가에 의한 경제 집중도가 높음

- 2013년 기준으로 CIS 경제권의 상위 1개국(러시아) 경제 집중도는 75.8%로 EU의 20.8%, ASEAN의 36.0%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<sup>8)</sup>
- 상위 3개국 집중도는 CIS 경제권이 90.2%, EU가 51.1%, ASEAN이 65.5%에 해당<sup>9)</sup>
- 상위 5개국 집중도 또한 CIS 경제권이 95.4%로 EU(70.9%)나 ASEAN(88.7%)의 상위 5개국 경제 집중도보다 높음<sup>10)</sup>

#### - CIS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EU, ASEAN보다 낮음

- CIS 경제권의 총 교역액(수출+수입)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0.1%에서 2012년 20.4%로 점진적으로 감소
- 한편 EU 경제권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03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지만, 2012년 기준 59.1%에 해당
- ASEAN 10개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05년에 처음으로 CIS 경제권을 추월하였고, 2012년 기준 24.7% 수준



자료: IMF(2013년 기준).

주: 상위 1·3·5개국 GDP가 경제권에서 차지하는 비중

자료: UNCTAD.

주: 총교역액(수출+수입) 중에서 역내교역 비중.

8) EU 28개국 중에서 GDP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독일이고, ASEAN 10개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큼.

9) CIS 경제권의 상위 3개국은 러시아·카자흐스탄·우크라이나, EU의 상위 3개국은 독일·프랑스·영국, ASEAN의 상위 3개국은 인도네시아·태국·말레이시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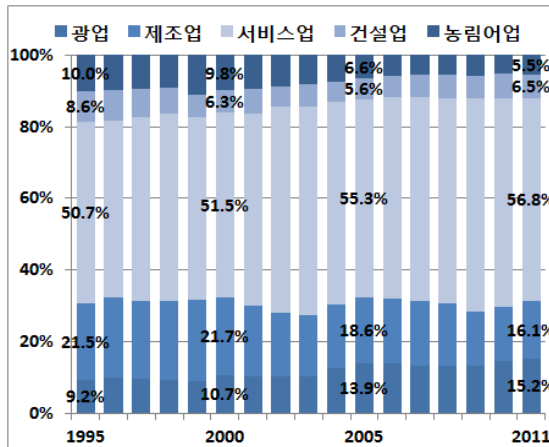
10) CIS 경제권의 상위 5개국은 러시아·카자흐스탄·우크라이나·아제르바이잔·벨라루스, EU의 상위 5개국은 독일·프랑스·영국·이탈리아·스페인, ASEAN의 상위 5개국은 인도네시아·태국·말레이시아·싱가포르·필리핀임.



○ (산업) CIS 경제권은 제조업이 취약한 자원 의존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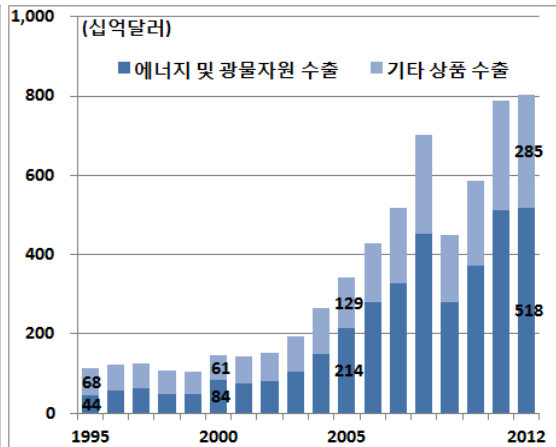
-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,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
  - 경제권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1.7%에서 2011년 16.1%로 소폭 감소
  - 한편 광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10.7%에서 2011년 15.2% 수준으로 증가
  -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CIS 경제권의 경기는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
- 상품 수출의 약 64.5%가 에너지 혹은 광물자원과 관련되어 있음
  -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액은 1995년 440억 달러에서 2012년 5,180억 달러로 연평균 15.6%씩 빠르게 성장
  - 자원 수출액을 제외한 상품 수출액은 1995년 440억 달러에서 2012년 2,850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이 8.8%에 불과
  - 전체 상품 수출에서 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기간 39.3%에서 64.5%로 증가
- 러시아 등 CIS 소속 주요 국가들은 산업 구조의 현대화 및 다변화 추진
  - 특히 러시아는 우수한 과학 인력과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항공우주, IT, 의료, 원자력 기술, 에너지 효율 분야의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<sup>11)</sup>

<CIS 경제권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>



자료: United Nations.  
 주: 광업에는 전기·가스·증기업 포함.

<CIS 경제권의 자원 수출 추이>



자료: World Trade Organization.

11) KOTRA(Global Window) 자료 참조

### 3. CIS 경제권의 성장 가능성

#### ○ (소비) 인구 2억 8천만 명의 거대한 소비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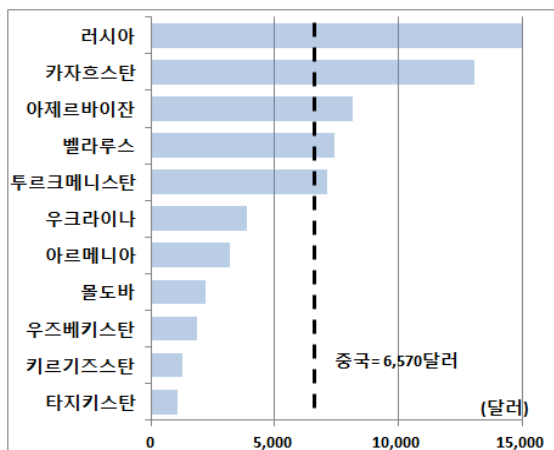
##### - CIS 경제권 국가들의 일인당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

- CIS 경제권의 일인당 GDP는 2000년 1,300달러에서 2013년 10,000달러로 연평균 17.2%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<sup>12)</sup>
- 2013년 기준으로 러시아, 카자흐스탄,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의 일인당 GDP가 중국보다 높음

##### - 러시아 등 CIS 11개국의 전세계 상품 수입액 비중은 약 3.0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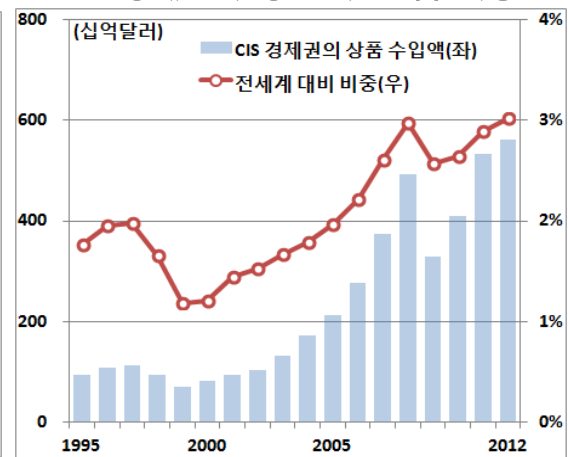
- CIS 경제권의 상품 수입액은 2000년 800억 달러에서 2012년 5,600억 달러로 연평균 17.5%씩 증가
- 전세계 상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.2%에서 2012년 3.0%로 2.5배 이상 상승
- 전세계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0년 0.9%(1,700억 달러)에서 2011년 2.9%(1조 1,900억 달러)로 증가<sup>13)</sup>

<CIS 소속 국가들의 일인당 GDP>



자료: IMF.  
주: 2013년 명목소득 기준.

<CIS 경제권의 상품 수입 및 비중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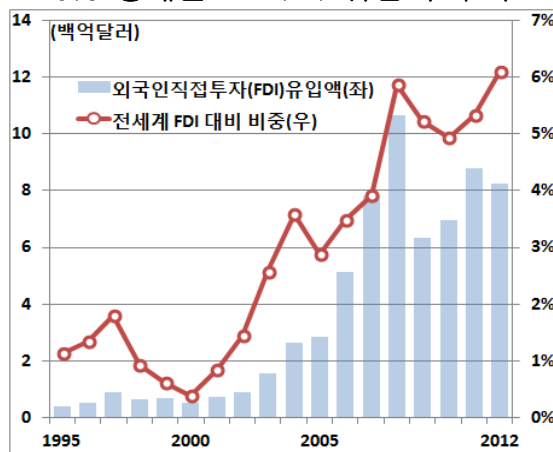
자료: World Trade Organization.

12) IMF의 국가별 명목 GDP와 인구 통계 활용하여 산출.  
13) World Bank의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기준.

○ (투자)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한 인프라 투자 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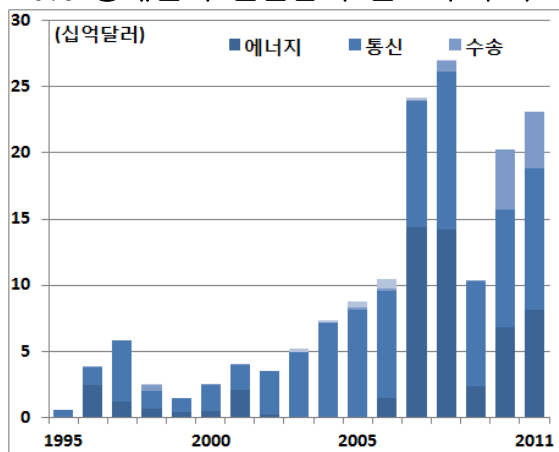
- 투자의 바탕이 되는 대규모의 자본은 많은 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음
  - CIS 경제권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2000년 약 53억 달러에서 2012년 823억 달러로 연평균 25.7%씩 증가
  - 동일 기간 CIS 경제권이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.4%에서 6.1%로 크게 증가
  - CIS 경제권에 대한 누적 투자액의 국가별 비중은 러시아 63.2%(4,190억 달러), 카자흐스탄 15.9%(1,054억 달러), 우크라이나 10.3%(684억 달러) 등<sup>14)</sup>
-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에너지·통신·수송 등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
  - 에너지·통신·수송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00년 26억 달러에서 2011년 231억 달러로 연평균 22.2%씩 증가
  - 누적 인프라 투자액에 대한 국가별 비중은 러시아 73.9%(1,173억 달러), 우크라이나 7.4%(118억 달러), 카자흐스탄 6.2%(99억 달러)<sup>15)</sup>
  - CIS 경제권 소속 국가들의 인프라 수준은 전세계 평균 이하이지만, 경제발전과 함께 대규모의 인프라 수요가 창출될 전망

<CIS 경제권으로 FDI 유입액 추이>



자료:UNCTAD.

<CIS 경제권의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>



자료:World Bank.

14) 투르크메니스탄 3.0%(198억 달러), 벨라루스 2.3%(153억 달러), 아제르바이잔 1.9%(128억 달러), 우즈베키스탄 1.2%(78억 달러) 등.

15) 벨라루스 5.7%(91억 달러), 우즈베크스탄 2.0%(32억 달러), 아르메니아 1.5%(25억 달러), 아제르바이잔 1.5%(23억 달러) 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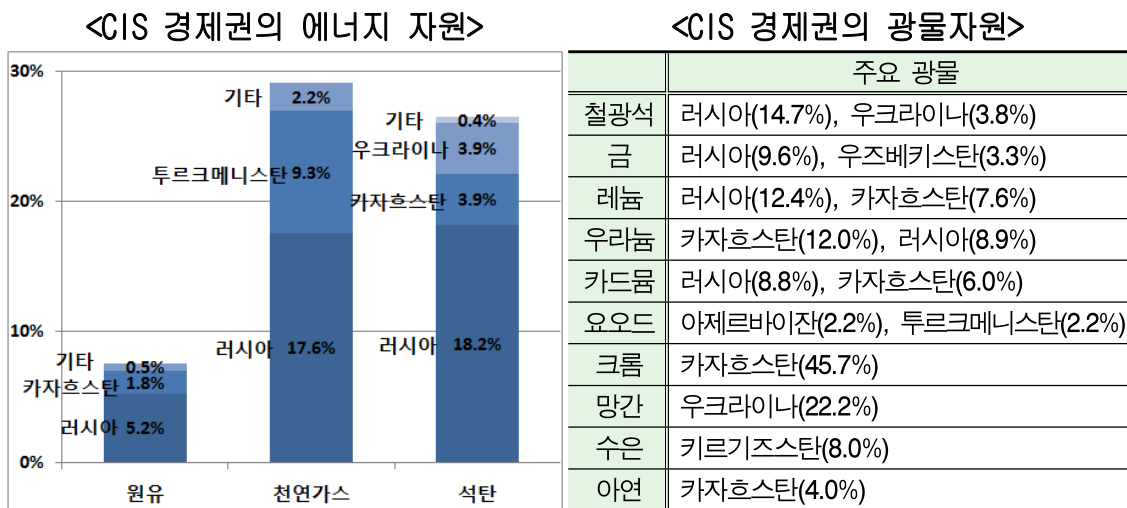
○ (자원)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보유

- 원유·석탄·가스 등 다량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

- CIS 경제권은 전세계 원유의 7.5%, 천연가스의 29.1%, 석탄의 26.5%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자원 매장 지역
- 특히 러시아는 원유 매장량의 5.2%(세계 8위), 천연가스 매장량의 17.6%(세계 1위), 석탄 매장량의 18.2%(세계 2위)를 보유한 CIS 최대의 자원부국<sup>16)</sup>
- 카자흐스탄은 원유(1.8%)와 석탄(3.9%)을,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(9.3%), 우크라이나는 석탄(3.9%)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음

- 철광석·금·크롬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다량으로 매장

- 러시아는 철광석(전세계 매장량의 14.7%), 금(9.6%), 레늄(12.4%), 카드뮴(8.8%) 등 다량의 광물자원을 보유
- 우크라이나에는 망간(22.2%)과 철광석(3.8%)이, 카자흐스탄에는 크롬(45.7%)을 비롯한 레늄(7.6%), 카드뮴(4.0%), 아연(4.0%) 등이 매장되어 있음
- CIS 지역은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은 것으로 추정



자료:BP(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3). 자료:USGS, KOMIS.

주:전세계 총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.

주:전세계 총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.

16) 한편 러시아는 생산량 기준으로 원유는 세계 3위, 천연가스는 세계 2위이고 수출량 기준으로 원유는 세계 2위, 천연가스는 세계 1위.

○ (물류) 지리적으로 물류 요충지에 위치

- CIS 경제권은 물류 산업 성장에 유리한 지리적 요충지에 입지

- CIS 지역은 유럽과 동북아, 중동 등과 맞닿아 있어서 다양한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에 해당
- 현재 CIS 소속 국가들의 물류 경쟁력은 2.60으로 전세계 평균인 2.87을 하회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음<sup>17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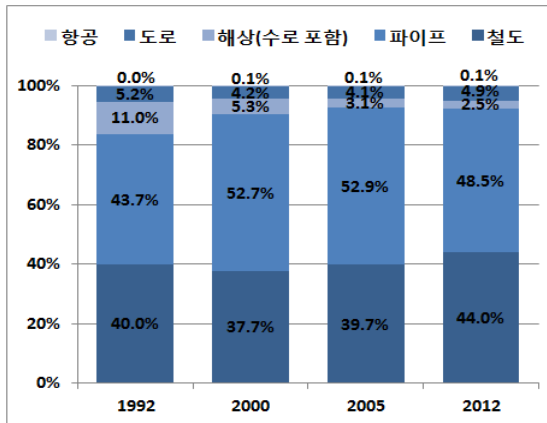
- 철도와 파이프라인 등 육상 물류를 중심으로 물류 산업이 발전

- CIS 경제권의 대표 국가인 러시아는 철도 물동량(44.0%)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물동량(48.5%) 비중이 92.5%를 차지
- 한편 도로(4.9%)나 해상(2.5%), 항공(0.1%)을 이용한 물동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흡

- 철도 인프라 수준은 양호하나 도로 인프라 수준은 취약

- CIS 소속 국가들의 철도 길이는 전세계 대비 12.4%이고, 도로 길이는 전세계 대비 5.4% 수준
- 러시아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 등 주요 국가들의 철도 품질은 양호한 수준이지만, 도로 품질은 전세계 평균 이하<sup>18)</sup>

<러시아의 운송 수단별 물류 비중>



자료:러시아 통계청.

<CIS 주요 국가의 철도와 도로 현황>

(단위: 천Km)

	철도		도로	
	길이	품질	길이	품질
러시아	87 (2위)	4.2 (31위)	1,283 (5위)	2.5 (136위)
우크라이나	22 (12위)	4.5 (25위)	170 (29위)	2.1 (144위)
카자흐스탄	15 (18위)	4.4 (27위)	97 (46위)	2.8 (117위)

자료:CIA, WEF.

- 주:1) 품질은 1~7점 기준
- 2) 괄호 안의 값은 전세계 순위.

17) World Bank는 적시성, 통관, 인프라, 역량, 화물추적, 국제운송 분야 등을 종합하여 물류성과지수(Logistics Performance Index)를 발표하고 있음. CIS 경제권 평균은 벨라루스를 제외한 10개국 평균이고, 전세계 평균은 155개국 평균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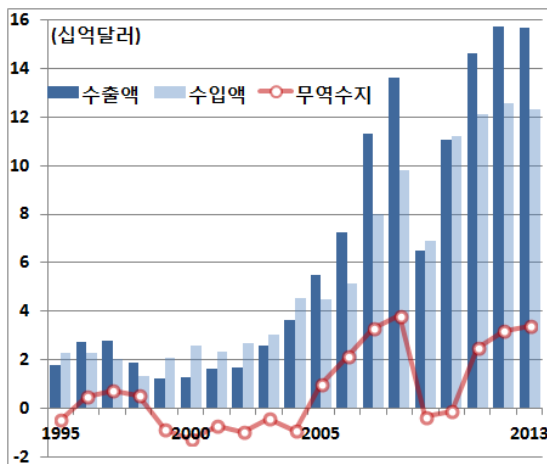
18) 철도 품질의 전세계 평균은 3.2(148개국 대상)이고, 도로 품질의 전세계 평균은 4.0(121개국 대상)수준(자료: WEF).

#### 4. 한국과 CIS 경제권의 경제 교류

○ (무역) 한국과 CIS 경제권의 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

- 한국의 對 CIS 경제권 교역액은 1995년 이후 연평균 11.4%씩 성장
  - 한국의 CIS 경제권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2.9%(1995~2013년), 수입 증가율은 9.9% 수준
  - 2013년 기준 157억 달러의 수출과 123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여 약 3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달성<sup>19)</sup>
  - 그러나 한국의 총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2.6% 수준에 불과(수출은 2.8%, 수입은 2.4%)
- 한국은 자동차 관련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, 원유 등 지하자원을 수입
  - 한국이 전세계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주요 제품들과 유사하게 승용차, 자동차 부품 등이 수출품목 상위 순위에 있음
  - 한편 한국은 CIS 지역에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원유, 나프타, 유연탄 등 자원을 주로 수입

<한국의 對 CIS 경제권 수출입 추이>



자료: 무역협회.

<한국의 對 CIS 경제권 수출입 품목>

순위	수출(백만 달러)		수입(백만 달러)	
	품목	금액	품목	금액
1	승용차	4,484	원유	4,326
2	자동차부품	2,548	나프타	1,750
3	합성수지	793	유연탄	1,279
4	건설중장비	624	천연가스	569
5	화물자동차	512	알루미늄괴 및 스크랩	556

자료: 무역협회(2013년 기준).  
주: MTI 4단위 기준.

19) 한국의 對 CIS 수출액의 국가별 비중은 러시아가 71.0%, 우즈베키스탄이 12.5%, 카자흐스탄이 6.8%, 우크라이나가 4.0%를 차지하고, 한국의 對 CIS 수입액의 국가별 비중은 러시아가 93.4%, 우크라이나가 3.6%, 카자흐스탄이 2.0% 수준(2013년 기준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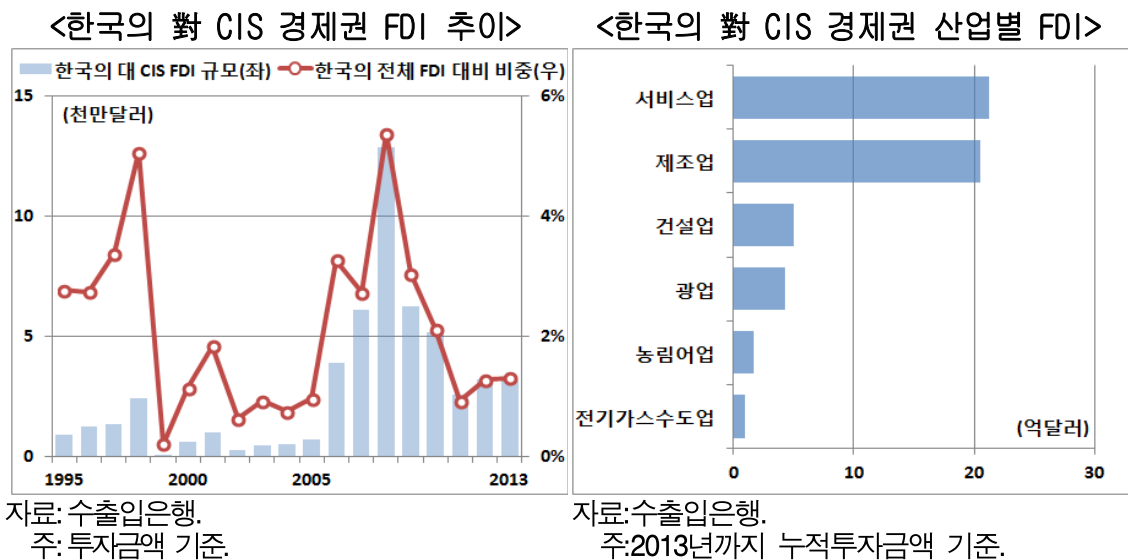
○ (투자) CIS 경제권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의 투자는 미약

- 한국의 對 CIS 경제권 투자 금액과 비중은 2008년 이후 크게 감소

- 한국의 對 CIS 투자 규모는 2008년 1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가 급감하기 시작하여 2013년 약 3억 달러에 불과함<sup>20)</sup>
- 한국의 전세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CIS 경제권의 비중은 2008년 5.4%에서 2013년 1.3%까지 하락
- 한편 CIS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액은 누적액 기준으로 약 2억 달러에 불과<sup>21)</sup>

-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

- 체제 전환 이후 한국의 CIS 경제권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약 54억 달러이고 21억 달러(38.2%)는 제조업, 21억 달러(39.2%)는 서비스업에 투자
- 성장 잠재력이 높은 자원 개발 등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4억 달러로 8.0%의 비중을 차지



20) CIS 경제권에 대한 누적 투자액(54억 달러)의 국가별 비중은 카자흐스탄 42.5%(23억 달러), 러시아 38.5%(21억 달러), 우즈베키스탄 11.6%(6억 달러), 우크라이나 4.6%(2억 달러) 등.

21) 2013년까지의 투자(신고)금액 기준(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).

## 5. 시사점

- 첫째, 장기적으로 EU 경제권을 능가할 잠재력을 보유한 CIS 경제권에 주목해야 한다.
  - 러시아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의 혼란기를 거쳐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카자흐스탄 등 다른 CIS 소속 국가들에 관심이 필요
  - 한국의 '유라시아 이니셔티브', 러시아의 '유라시아연합' 계획 등에 따르면, 향후 CIS 경제권과 한·중·일 동북아 경제권, EU의 경제 교류는 점차 증가할 전망
  - 한편 CIS 경제권이 EU와 같은 단일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교역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구조 개선이 필요
  
- 둘째, 유라시아 대륙 물류시장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
  - CIS 경제권은 한국, 중국, 유럽 등을 접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물류 기지로 활용하기에 적합
  - 남북한과 러시아 등 CIS 경제권,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
  
- 셋째, 자원개발, 인프라 건설 등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.
  - 자원개발 시장은 CIS 경제권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을 결합시킬 수 있는 신사업 기회에 해당
  - CIS 소속 국가들은 성장을 가로 막는 낙후된 인프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, 이는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대규모 수요를 창출
  -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유인정책을 활용하고 법적·제도적 조건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진출 전략 마련
  
- 넷째, CIS 경제권의 정치·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.
  - 중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,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와 EU의 주도권 다툼 등 정치·사회적 불안요인이 상존
  -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 불안의 가능성, 글로벌 기업 진출의 가속화로 인한 경쟁 심화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**HRI**

백홍기 수석연구위원 (hkback@hri.co.kr, 2072-6228)

안중기 선임 연구원 (joonggiahn@hri.co.kr, 2072-6242)



HRI 경제 통계

---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---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구분	2012	2013					2014			
		1/4	2/4	3/4	4/4	연간	1/4	연간(E)		
국민계정	경제성장률(%)	2.3	2.1	2.7	3.4	3.7	3.0	3.9	3.8	
	민간소비(%)	1.9	1.7	2.1	2.1	2.2	2.0	2.6	2.7	
	건설투자(%)	-3.9	1.9	9.8	8.8	5.4	6.7	4.1	2.5	
	설비투자(%)	0.1	-12.7	-3.9	1.5	10.9	-1.5	8.0	6.7	
대외거래	경상수지(억 \$)	508	105	208	238	248	799	151	490	
	통관기준	무역수지(억 \$)	283	56	144	108	133	441	59	370
		수출(억 \$) 증감률(%)	5,479 (-1.3)	1,353 (0.3)	1,412 (0.7)	1,368 (2.8)	1,464 (4.7)	5,596 (2.1)	1,383 (2.2)	6,067 (8.4)
	수입(억 \$) 증감률(%)	5,196 (-0.9)	1,297 (-2.9)	1,268 (-2.8)	1,260 (0.3)	1,331 (2.5)	5,156 (-0.8)	1,324 (2.1)	5,697 (10.5)	
		소비자물가 상승률(%)	2.2	1.6	1.2	1.4	1.1	1.3	1.1	2.4
	실업률(%)	3.2	3.6	3.1	3.0	2.8	3.1	4.0	3.1	
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	1,127	1,085	1,123	1,111	1,062	1,095	1,069	1,070		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